

“전면파업” “직장폐쇄”... ‘금타’ 노사 파국 치닫나

〈금호타이어〉

임단협 33번째 교섭 소득 없이 끝나

광주상의 이어 경총도 파업 자제 촉구

33번째 만남도 결렬됐다. 노사 관계자 모두 목소리에 피곤함이 역력했다. 하지만 회사와 노동조합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또다시 쟁의행위로 맞서기로 했다.

해를 넘겨 진행중인 금호타이어 노사의 2014 임금단체교섭 협상 33차 본교섭이 8일 2시간 만에 소득없이 끝나면서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번 임단협 교섭은 매년 최장기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가장 길었던 임단협 교섭은 지난 2012년 23차였다. 그만큼 금호타이어 노사가 이번 임단협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중이다.

주요 쟁점인 임금체계를 놓고 임단협이 여전히 엇박자. 노조는 5년간의 워크아웃 기간 기본급 10% 삭감과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과 더불어 복지 축소에 따른 임금 삭감액이 5년간 35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반면 회사 측은 1인당 평균 2014년 790만원, 2015년 1336만원 등 총 2126만원을 인상, 인상이 전년보다 25.6%에 달해 경쟁사에 준하는 만큼, 임단협을 타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양측 모두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노사의 신뢰관계도 바닥에 떨어졌다. 노조는 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난달에 이어 추가파업을 논의하기로 했다. 12일부터 경고 및 부분파업을 벌이고, 20일 이후엔 전면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직장폐쇄’라는 단어를 꺼내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실무단위에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당한 쟁의권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직장폐쇄를 언급한 적도, 언급할 단계도 아니며 여전히 대화로 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노조가 너무 예단해 행동하고 있다”며 “쟁점에 대해 논의해 하루 빨리 타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극한 상황까지 가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크아웃 졸업이라는 경사를 맞았음에도 지역 경제를 더욱 경색시키고 있는 이번 사태에 지역 경제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방문, 하용대 노조 지회장에게 “워크아웃 졸업을 위해 그간 고생해왔던 결실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쉽고, 올해만이 아닌 장기적인 차원에서 회사 안정과 성장을 위해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며 노조의 양보와 회사의 어려운 여건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앞서 7일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도 광주공장을 찾아 노조 간부들에게 파업 중단과 관련한 임단협 타결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노사가 힘을 합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는데 파업 사태가 일어나 매우 안타깝다”며 “지역경제를 위해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캐릭터 가방 인기

새해를 맞아 초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책가방 특판전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8일 한 고객이 백화점 가방매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인기 캐릭터 책가방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04.65 (+20.82) 금리 (국고채 3년) 2.07%
- ▲ 코스닥 566.43 (+5.11) ▼ 환율 (USD) 1096.90원 (-3.00)

효성 ‘폴리케톤’ 정부 주력산업으로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

2020년까지 1조 투자

효성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 원천기술을 개발한 ‘폴리케톤’이 정부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선정돼 경쟁력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폴리케톤은 기존 산업소재보다 내충격성과 내마모성·내화특성이 뛰어난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로, 가정용품과 카메라·항공기 등 구조재료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면으로 연 제3차 창조경제 민간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플래그십(주력) 프로젝트 추진계획안’을 확정했다.

계획안은 폴리케톤 산업 활성화를 통해 미국 듀폰과 독일 바이엘 등 선진국 일부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세계 시장

에 본격 진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재업체-수요·가공업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 지원을 받아 세계 최초로 폴리케톤 상용화 원천기술을 개발한 효성은 올해 5만 규모의 폴리케톤 생산 시설을 완공하고, 2020년까지 1조원가량을 투자해 대규모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한국지역과 동아베스텍, 노틸러스 효성 등 수요업체는 550억원가량을 투입해 마모가 되지 않으면서 가벼워야 하는 제품에 폴리케톤을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폴리케톤 소재에 녹색인증을 부여하고, 시범사업 참여 업체의 성형기술 개발 등을 위해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신년 인사회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회장 김영구)가 8일 오전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2015 대표회원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전남지역 건설인들의 새해 힘찬 출발과 화합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전남 소재 100여개 종합건설업 대표회원과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영구 회장은 “지역건설산업 환경을 둘러싼 경영여건이 어려운 만큼 지역건설업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 건설업의 성장과 발전 및 지역 건설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신사임당’ 어디로 갔나?

지난해 화폐 발행액 증가 불구

5만원권 환수액 58%나 줄어

그렇던 ‘신사임당’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지난해에도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 발행된 5만원권의 환수가 줄어드는 등 발행 화폐의 환수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북지역 화폐 발행액은 3조6339억원으로 전년보다 2.2%(777억원) 증가했으나, 환수액은 2조19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4.3%(3665억원) 감소했다. 환수액의 경우 2011년 2조9602억 원에서 2012년 3조636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2조5659억원, 2014년 2조1994억원으로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했다.

환수율 역시 2011년 80.9%이던 것이 이듬해 82.4%로 증가했으나 이후 2013년 72.2%, 2014년 60.5%로 2년 내리 감소했다.

환수액이 이처럼 급감한 것은 5만원권 환수액이 전년보다 58.2%(4495억 원)나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5만원권 환수액은 8889억 원에서 이듬해 1조1684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다시 2013년, 2014년에 7723억 원과 3228억 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주화는 대대적인 동전교환운동 등으로 환수율이 높았다. 발행액은 103억 원으로 전년보다 14.2% 감소했지만 환수액은 28억원으로 2013년과 동일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크루즈 컨트롤 적용 ‘더 뉴 모닝’ 기아자동차가 안전사양을 대거 추가하고 내외장 디자인을 보강해 상품성을 높인 ‘더 뉴 모닝’을 8일부터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새 모델은 국내 경차 가운데 처음으로 ‘크루즈 컨트롤’(일정 속도 유지기능)을 적용하는 등 뛰어난 편의성을 갖췄다. <기아차 제공>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 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층 70m 혁신형 BI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30년 전통의 - **민우액자표구화랑**

영화 캔버스 액자, 표구, 각종액자 제작, 그림판매

작가의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허경식

목포시 산정동 112-1 (백년로 4거리 장악국 건너편)

T (061)274-1481

H 010-2632-1481